

16과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에서 조성웅p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4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에 대한 주제로 함께 교제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귀한 교사의 직분으로 불러주시며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서 이 모든 봉사의 직분을 능히 감당하며 특히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참으로 열정을 가진 교사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교사로서 참으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는 저희되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전국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참으로 주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능히 이 귀한 직분 수행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옵니다.

친히 인도하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25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군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28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9 야곱이 죽을 썬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30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32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27 Y crecieron los niños, y Esaú fue diestro en la caza, hombre del campo; pero Jacob era varón quieto, que habitaba en tiendas.

28 Y amó Isaac a Esaú, porque comía de su caza; mas Rebeca amaba a Jacob.

29 Y guisó Jacob un potaje; y volviendo Esaú del campo, cansado,

30 dijo a Jacob: Te ruego que me des a comer de ese guiso rojo, pues estoy muy cansado. Por tanto fue llamado su nombre Edom.

31 Y Jacob respondió: Véndeme en este día tu primogenitura.

32 Entonces dijo Esaú: He aquí yo me voy a morir; ¿para qué, pues, me servirá la primogenitura?

33 Y dijo Jacob: Júramelo en este día. Y él le juró, y vendió a Jacob su primogenitura.

34 Entonces Jacob dio a Esaú pan y del guisado de las lentejas; y él comió y bebió, y se levantó y se fue. Así menospreció Esaú la primogenitura.

오늘은 특별히 에서의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지 못하며 세상에 마음을 두도록 유혹하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눈을 달아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에서는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그러한 육신적인 모습은 장자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상속권을 받은 참으로 특권을 갖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에서가 그러했으며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남들보다 뛰어났으며 또한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에서가 어떠한 선택을 하였으며 그 선택에 그러한 원인이 어떠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잡으시고 요한1서 5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4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4 Porque todo lo que es nacido de Dios vence al mundo; y ésta es la victoria que ha vencido al mundo, nuestra fe.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서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들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하찮은 것에 참으로 영원한 장자의 명분, 주님께서 주시고자하는 천국의 소망을 쉽게 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돌아보게 되고 또한 순간적인 그리고 찰나적인 기쁨에 우리의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눈에 보이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죠.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18 no mirando nosotros las cosas que se ven, sino las que no se ven; pues las

cosas que se ven son temporales, pero las que no se ven son eternas.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에 두고 있는 사람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에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고 또한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허무함을 아는 사람은 영원한 것에, 모든 것에 초점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에서를 통해서 참으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또한 삶의 목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자기의 모든 것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의 선택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선택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 23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7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7 Porque cual es su pensamiento en su corazón, tal es él. Come y bebe, te dirá; Mas su corazón no está contigo.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그 사람의 됴됨이를 나타내줍니다.

또한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어떠하느냐 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 마음의 생각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삶의 목적을 이 세상에 두었으며 땅에 두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또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너무나 가치없게 또한 소홀하고 하찮게 여겨버렸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5장 32절 말씀.

32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2 Entonces dijo Esaú: He aquí yo me voy a morir; ¿para qué, pues, me servirá la primogenitura?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서는 지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가 고프고 먹지 못했다고 해서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배고픔을 장자의 명분과 바꾸겠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세상의 하찮은 것을 위해서 너무나 큰 영원한 것을 그렇게 버려버리는 에서의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평상시에 육신의 즐거움에 많은 그러한 가치를 두었죠?

그래서 먹는 것, 즐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함 보다 우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4절 말씀.

34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34 Entonces Jacob dio a Esaú pan y del guisado de las lentejas; y él comió y bebió, y se levantó y se fue. Así menospreció Esaú la primogenitura.

이와 같이 세상의 것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그러한 장자의 명분, 구원의 소망을 팔아버렸습니다.

에서의 평상시의 삶이 그랬던 것입니다.

또한 에서는 아내를 얻을 때도 그러한 자기의 육신적인 선택을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26장 34절 말씀입니다.

34 에서가 사십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34 Y cuando Esaú era de cuarenta años, tomó por mujer a Judit hija de Beeriheteo, y a Basemat hija de Elón heteo;

하나님 (안들림) 장자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에서.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대를 잇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계보를 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더라면 그는 결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손이 이방인과 혼혈됨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육신의 쾌락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의 아내를 택하고 그들 모두 이방인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에서는 철저하게 그의 중요한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선택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선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죄 가운데에서 또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바는 그들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결정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사들 또한 학생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또한 그러한 생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며 그러한 행동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떠나있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또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또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영원한 것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에서가 선택했던 그러한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은 그 선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그러한 대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으며 야곱으로부터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축복은 단지 아버지로부터의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의 그 선택 가운데에서 제외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말씀 창세기 27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2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말아들 에서로소이다

32 Entonces Isaac su padre le dijo: ¿Quién eres tú? Y él le dijo: Yo soy tu hijo, tu primogénito, Esaú.

에서가 사냥하여서 그 사냥한 음식으로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자 했던 에서.

그런데도 놀랍게 이삭은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너무나 익숙했던 에서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축복은 야곱에게 주어진터였고 그리고 더 이상 에서에게는 축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냐 라고 이삭이 에서를 물어봅니다.

물론 몰라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늦게 들어온 에서. 그는 참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고 야곱의 축복을 이삭의 축복을 잃어버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4절 말씀.

34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34 Cuando Esaú oyó las palabras de su padre, clamó con una muy grande y muy amarga exclamación, y le dijo: Bendíceme también a mí, padre mío.

에서는 자기의 선택을 철저히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회의 시점이 너무나 늦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성대곡하였으며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남겨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기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분한 기회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끝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방주에 탈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 결국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신 후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자리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함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 사람.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영원한 축복은 다시 에서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영원한 불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이상 영광돌리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이심을, 쓰이심에 스스로를 포기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0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갇이 으리라 하니라

30 Y al siervo inútil echadle en las tinieblas de afuera; allí será el lloro y el crujir de dientes.

이와 같이 버림받은 자의 그러한 최후는 슬피 울며 이를 갇이니라.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참으로 한 번 달힌 구원의 문.

하나님의 축복이 지나간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교훈해줍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상급을 받는데 있어서 참으로 많은 교훈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물론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근본적으로 세상에 소망을 둘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 만날 그 때 무궁한 부끄러움 가운데 끼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교훈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귀를 달아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17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7 Porque ya sabéis que aun después, deseando heredar la bendición, fue desechado, y no hubo oportunidad para el arrepentimiento, aunque la procuró con lágrimas.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이제 이러한 에서의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절 위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6 no sea que haya algún fornicario, o profano, como Esaú, que por una sola comida vendió su primogenitura.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두려워할 것을 경계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한 그릇 식물의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에 모든 선택 가운데에서 먼저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선택하지 못함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 두고 또한 그들의 모든 선택 가운데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며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소망. 영원한 천국에 두며 하늘에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것 가운데 이중국적자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유익한 것, 좋은 것을 선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의 국적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더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민권. 과연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시민권과 하늘나라에서의 시민권을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에서 그것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20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20 Mas nuestra ciudadanía está en los cielos, de donde también esperamos al Salvador, al Señor Jesucristo;

21 el cual transformará el cuerpo de la humillación nuestra, para que sea semejante al cuerpo de la gloria suya, por el poder con el cual puede también sujetar a sí mismo todas las cosas.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그러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의 모든 선택은 주님께 합당한 선택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주 안에서 참으로 수고하시며 또한 이 세상에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많은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며 또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 소망두지 아니하며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는 저희되기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세상의 풍조 가운데 유혹받으며 그들이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 학생들.

또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여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

참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아이들 참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되며 모든 것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영원한 것에 기준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